제1장 시민의 책무로서 공동체 방어

1. 양심적 병역거부와 폭력적 병역이행 사이에 중립은 없었다 | 013

2.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드리는 편지 | 034

3.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, 국가는 내 가족을 지켜주는가? | 044

제2장 병역거부와 군대비판

1. '양심에 따른 병역거부' 를 지지합니다 | 055

2.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3중처벌 | 057

3. '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' 인정을 환영한다 | 059

4. 병무청을 폐지하고, 사회복무청으로 전환을? | 063

5. 민방위와 사회적 방어 | 066

6. 군인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라! | 069

7. 10년 동안 군 입대를 늦추다보니 | 072

8. 국가는 병역의무자의 자녀양육권을 즉각 보장하라 | 075

9. '서른 즈음에' 쓰는 '이등병의 편지' | 078

10. 총으로 글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| 081

제3장 나의 평화주의자, 장 지오노

1. "전쟁의 참혹함을 통해 평화주의를 깨닫다" | 087

2. 나는 잊지 못한다 | 093

제4장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, 제주

1. 국가안보를 넘어 비무장과 비폭력 '평화의 섬'으로 나가자 | 111

2. 팔레스타인 가자지구, 서귀포 강정마을로 부치는 평화기부금 | 123

3. '지식범죄' 고발: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전문가들 | 128

4. '기지의 섬'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| 137

5.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춰라 | 148

〈부록〉

1. 병역의무자의 자녀양육권 보장 촉구 건의문 | 163

2.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항과 사회의 생태적 전환 | 205